

# 옥수동에서 면암정동이 보인다



연출: 윤장한 작가: 김태수 기획: 이미나 장소: 제1공학관 3층 대학극장  
일시: 2003년 3월 6일 (목), 7일 (금) 오후 7시 / 3월 8일 (토) 오후 2, 6시

## 모시는 글

요즘 세상은 뒤죽박죽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도 뒤죽박죽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극회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공연입니다.  
공연을 한 번 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공연을 위해  
조금 더 심성의 깊은 곳을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  
극회인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투사입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려고  
치열하게 투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섭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춤추실까요?

## 기획의 변

처음 기획이 되던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기획 일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우리는.. 극회는..  
언제나 하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만 하려고 했던 우물에서  
땅을 박차고 위로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늘이  
지금은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극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극회장 이상혁(정통전 01)



기획 이미나(국제통상 01)

## 작가연구

### 김태수

대전출생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극작. 연출 전공.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대학원 PR 광고학과 졸업.

84'~86' KBS3 TV 방송작가

86' 대전일보 신춘문예 희곡 '파멸' 당선

87' 희곡단행본 장막 '풍무도' 출간

87' 단막 희곡 '늪지대' 발표 (희곡작가협회 희곡집 수록 및 회원 가입)

87'~95' 연극을 떠나 광고대행사의 프로듀서 및 제작 프러덕션의 CF감독 및 카피라이터로 활동  
(유명 광고 및 유명 카페 포함 약 80편의 CF 광고 직접 제작)

95' <베아트리체는 순수의 시대로 떠났다>

96'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국내 최초 전작 각색

97' <비오는 날의 축제>, <서울 열목어>

98'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코메디 클럽에서 올다>, <칼 이야기>, <꽃그네>- 국립극단 정기공연 드라마트루그

99'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연어는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마당극-별 산대놀이가 다 있네>

00' <밀레니엄 대축제 DMZ 2000퍼포먼스 임진각 공연>, <홍어>, <마당극-동네방네 나팔불고>

01' <악극-여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나비는 천 년을 꿈꾼다>, <칼맨>, <뮤지컬-효녀 무사 바리공주>  
<오페라-허난설헌의 불꽃 아리랑>

02' <악극-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구아나>

03' <악극-봄날은 간다>

동국대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했고 잘나가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가, 연극을 잊지 못해 극작가로 변신했다. <연어>, <칼맨>,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등의 작가로, 서민극에서 탄탄한 자리를 잡은 대학로 인기 작가다. "한국어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김태수 씨의 언어는 이 희곡에서도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하여,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언어로 포장하는 그 만의 능력을 보여준다.

\*김태수 커뮤니티- FREECHAL 커뮤니티 "극작가 김태수". <http://www.dramawriter.net/>

### 작품 줄거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수동 꼭대기 집에 둑지를 틀고 사는 노인 김숙자. 그녀는 아홉 개의 손을 가진 구손이지만 동네 어귀에서 열쇠를 만들며 사는 열쇠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집에 세들어 사는 또 하나의 인물, 일명 옥수동 문어 박문호. 어설픈 화투꾼 문호는 옥수동 월세 방에 살면서 늘 가와사끼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화투판을 전전하는 처지이다. 숙자와 문호와는 늘 티격태격이다. 어느 날 이 집에 막 이사온 인물, 조미령. 채리나라는 예명을 갖고 서울 범두리 밤무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야간업소 여가수이다. 언뜻,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한 가슴과 꿈을 먹고 사는 미모의 여자이기도 하다.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미령이 세들어 오면서 문호의 가슴은 후끈 달아오르지만 조미령이 이사온 첫날부터 박문호는 사사건건 그녀와 티격태격, 쉽게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한편 문호는 화투로 숙자를 놀려주려는 의도로 화투 솜씨를 선보이다가 그가 한 때 국내 최고의 화투 고수였다는 것을 알고는 미친 듯이 그에게 매달린다. 그런 문호에게도 화투에 매달릴 만한 뼈아픈 과거가 숨겨있었는데...

### 작품 연구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수동 꼭대기집에 둑지를 틀고 사는 아홉 개의 손가락을 가진 숙자와 화투꾼 문호, 삼류가수 미령이 서로 부대끼며 살면서 그들의 꿈과 좌절의 아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빠른 템포로 엮은 작품이다. 총 2막으로 되어있는데 1막은 '도박'을, 2막은 '사랑'을 주제로 하며 현재 → 과거 → 현재의 구조를 나타낸다. 한강을 사이로 제일 잘 사는 동네와 그 험지 못한 동네가 마주 보고 있는 절묘한 상황을, 곳곳에 장치한 웃음과 슬픔과 희망과 감동으로 튼실히 짜놓은 이 작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강처럼 갈라져있는 단절과 경계를 그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 속에 또 강물이 흐르듯 그들의 축축하고 농진한 삶에도 부단히 이어지는 희망에 대한 도전이 있으며 그 아래에 역설적인 웃음으로 표현되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부촌 압구정동이 보이는 옥수동 산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삶과애환을 서사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주인과 세입자의 일상을 통해 즉, 사회구조 속의 주변적인 인물들의 삶을 철저한 리얼리즘 형식으로 분석하여 살아있는 인물로 창조하고, 각각의 인물들을 유기적인 사슬망으로 형성시켜, 우리 시대의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무대 위에 형상화시켰다. 결국 진정 필요한 것은 "부를 쫓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연출의 변

일단 저희 숭대극회의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오르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극회원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건에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촉매로 인해 활동 가능한, 혹은 활동 불가능하더라도 숨겨진 매개체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체의 각각의 반응에 의해 사건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극에서, 촉매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즉 연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출에 의해 배우가 자극을 받아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은 현실의 사건과 다르게 책임과 관심에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은 연극 테두리 밖의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대학 연극은, 일제 시대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민중극의 현대적 뿌리입니다.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순수극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수고 많았던 배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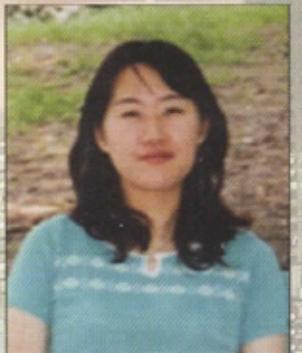
“무엇보다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구나.”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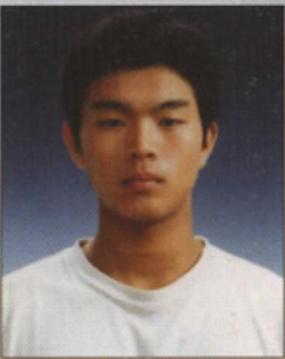
순수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싶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찾으라라 믿으며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박문호 역  
최연경 (정통전 98)  
cykung@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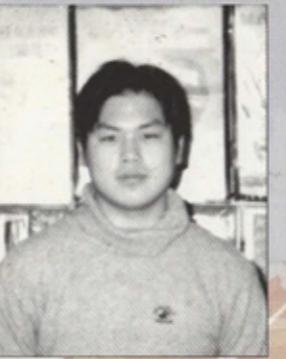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슬퍼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언제나 마음은 태양 ~

조미령 역  
강유미 (중기 00)  
beautifulwillow@hotmail.com



연출  
윤장한 (경제 98)

## MAIN STAFF



조명  
김영걸 (정통전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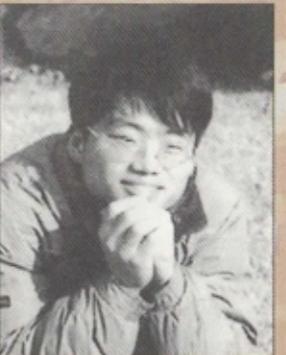


음향  
김태욱 (경영 98)

## STAFF



무대감독  
차상우 (기계 97)



무대장치  
김명진 (전통전 96)



의상 & 소품  
강혜정 (독문 00)



김숙자 역  
한주영 (경영 99)  
fly-moon@hanmail.net



분장  
김희진 (경영 99)



분장  
이경마 (산공 99)



소품  
백종혜 (국문 98)



진행  
이세훈 (전기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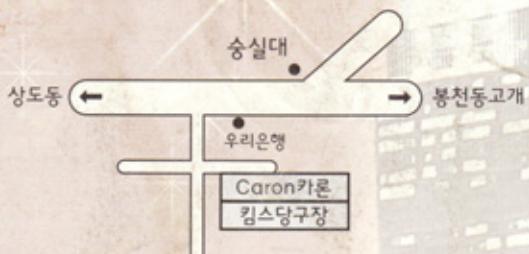


진행  
김종백 (경제 99)



## 도와주신 분들

거 품	고추전쟁	동아마트	미 향	발 해	백 마
벅스버니	본하이머	BLACK HOLE	블루힐	숭실상회	앤틱
이오땡	이태리시장	JUST FRIEND	제일철물점	청운숯불갈비	해리피아
가 야 성 817-8741		꽃을 든 남자 821-4324		대림스낵	Buy the Way
<b>MONOPOLY</b> 따뜻한 사람냄새가 나는 보드게임을 즐겨보세요~ --> 824-9582			우드 앤 클락 숭실대역 2번 출구	유쾌한 노래방  한끼 & 한잔	



\*숭실대 전철역 2번출구\*

### 카론에 왜 가니?

- 일. 분위기 죽이지!
- 이. 안주 다양하고 푸짐하지~
- 삼. 서비스 많이 주지~
- 사. 7시 이전에 오면 10% D.C해주지  
 “공연 당일 팜플렛 가져 오시는 분께는  
 10% D.C 해드립니다.”

### 킴스 당구장

손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